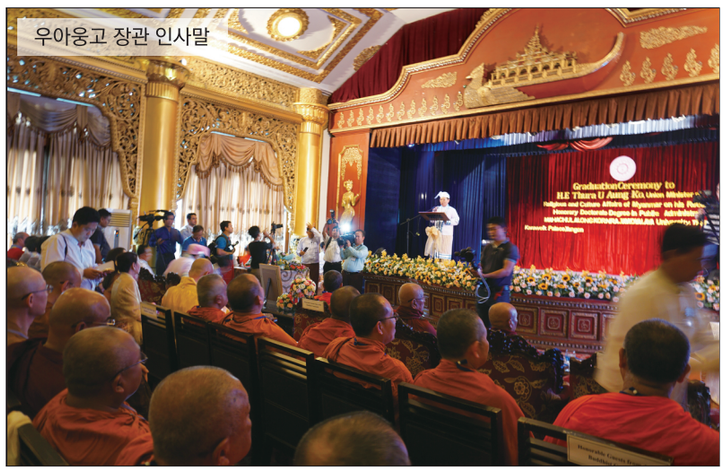
세계불교법왕청 & ABC 사무국 개원

아시아불교연합 공동체

불기 2563(2019)년 7월 10일 미얀마 양곤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 개관 행사 테이프 커팅식


양곤에 위치한 사무국 전경


우아웅고 장관 인사말


동남아시아 불교 발전의 진로에 관한 세미나


파고다 피야딘티(우산)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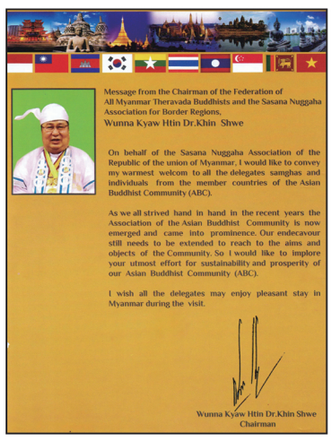

양곤 사무국 개관 축하 행사


바간 성지순례 기념사진


사무국 개관 기념식


사무국 개관 행사 전 축하공연


우아웅고 문화 종교성 장관 인사말



미얀마 불교 수호협회회장 Dr.킨쉐이 인사말

아시아연합공동체 상임이사국 미얀마에서 미얀마, 한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이사국과 중국, 일본, 네팔, 호주 단체대표단이 참석하여 전 세계불교를 이끌고 갈 강력한 조직체를 염원하며 미얀마 불교수호협회 Dr 킨쉐이 회장의 주도하에 미얀마와 태국을 중심으로 15회의 개별 국가 회의를 걸쳐 드디어 불교연합공동체를 이끌어 갈 법왕청 임시 사무실을 양곤에 마련하였다.

미얀마 문화 종교성 U Aung Ko 장관이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개관식을 봉행하였다. 세계불교법왕청 & ABC 상임부회장 목탁스님은 종교성 장관 (U Aung Ko)과 불교수호협회 회장(Dr 킨쉐이)의 노고와 태국대표 사와이 스님의 후원에 감사를 표하고 "대승권과 상좌부권이 하나가 되어 세계불교의 높은 위상과 중생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 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 라는 취지의 축사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 일행은 쉐다곤 파고다의 순례에 이어 바간 불교박물관을 방문하여 불교역사의 전파 과정에 대해 학술대회를 겸한 토론하는 일정을 갖았다. 12개국 대표와 종교성장관과 불교 수호협회회장(Dr킨쉐이)을 주관으로 마궤이주 짜운떠야 사원 보수 및 우산행사로 6박7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목탁스님, 혜정스님, 법운스님, 법성스님, 진성스님, 송운스님, 백련스님이 정식 등록되었다.


세계불교 법왕청 & ABC 공식 마크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국제붓다 평화봉사단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종교법인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범종단 정화 호법단

대표전화 02-733-5665 / 5670
Mobile 010-3618-6061
E-mail moktak1@korea.com

대불종 종정 만주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이사장 **목탁** | 호법원장 **진성**
법왕청 각료 일동 합장

불교계에서 세계적으로 큰업적을 이루셨던 서경보큰스님께서 평소에 이루고자 하셨던 가칭 세계불교법왕청이라 칭하고 초대법왕을 지내시다가 큰스님 열반으로 가칭단체가 없어지고 한낱 물거품이 되어 안타까워하던 소승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을 창설하고 당시 서경보스님 문도회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협조의 약속을 받은 바 있었으며 본 협회가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자 갑자기 세계불교법왕청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의 활동에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조직과 활동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각 나라의 승왕들에게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수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이시며 종정이신 우나라다큰스님이 법왕이 되시고, 각 나라 승왕들의 도움으로 세계불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조직화를 위한 본부를 창설하여 미얀마 연방정부 문화종교성장관의 주관으로 개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4일자 불교계주간지 신문에 만주스님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수석대표이고 승왕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법왕청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500여 임원진들의 사실 확인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니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단체의 회장이나 일부군소종단의 종정이나 단체의 장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법왕이나 승왕은 달라이나마 존자나 서경보큰스님들과 큰스님들에게 걸맞은 명칭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스님에게 적합한 명칭이기에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수석대표도 없고 누구를 승왕으로 추대하거나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승왕으로 임명했는지 공개적으로 임명장 공개와 법인 등록증을 신문을 통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